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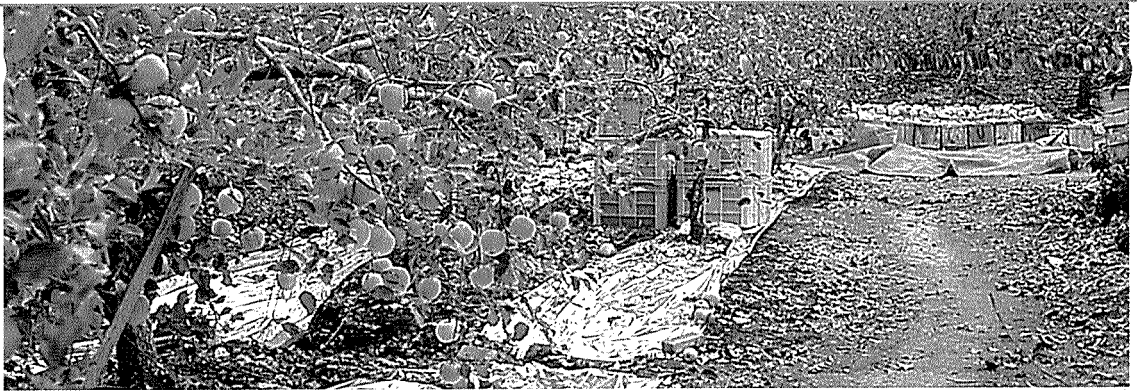


소수서원

옛 향기를 찾아 떠나는 가을여행 유교문화의 본고장, 영주 돌아보기

글 사진 김 맑 음 <여행작가>

춘천에서 대구까지 이어지는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죽령터널을 벗어나면 소백산 아래 고즈넉하게 들어앉은 영주시 풍기읍이 한눈에 들어온다.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인삼 재배지다. 1510년대부터 인삼 재배를 시작한 이곳에서는 전국 인삼의 10%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풍기읍에 들어서면 크고 작은 인삼 판매 상점들이 즐비한데, 읍내 서부리 일대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삼 시장이 열리고 있어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매년 10월에 펼쳐지는 풍기인삼축제는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 특히 인삼캐기 현장 체험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산 인삼과 함께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풍기 인삼은 다양한 판로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수삼·백삼·홍삼정 같은 기존 제품 외에 피부삼·홍삼마죽·선식·홍삼비누·홍삼캔디 등 20개가 넘는 신규 브랜드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수출도 꾸준히 늘어나 지난 2000년 4200달러에 불과했던 풍기 인삼 수출액은 2001년 26만달러, 지난해에는 57만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신장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99년 세워진 풍기 인삼연구소에서 인삼의 품질개량과 재배기술을 꾸준히 추진한 덕분이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판매도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풍기인삼마을 홈페이지(www.punggi.invil.org)를 개설해 멀리서 직접 가게를 찾아오지 않더라도 안방에서 24시간 인삼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사이트는 시장 내



영주사과밭

상점과 100여 채배 농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소백산을 끼고 있는 영주는 가는 곳마다 눈길을 끄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데,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봉황산(819m) 기슭에 자리잡은 부석사(浮石寺)와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붕이 세운 소수서원은 이 고을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문화유산이다.

먼저 풍기에서 915번 지방도로를 따라 순흥면 소재지로 간다. 산과 들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들은 가을 기운이 충만하다. 길가 사과나무밭은 나뭇가지가 훨 정도로 탐스런 사과들이 가득 매달려 있다.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들이며 해바라기, 채송화가 심어진 길을 따라 얼마쯤 달리니 읍내리 벽화고분을 알리는 이정표가 시야에 들어온다. 1985년에 발굴된 이 고분 내부에는 봉황, 새, 구름이 다채롭게 그려져 신비롭다. 고분을 둘러싼 비봉산은 벌써 가을의 중심. 붉은 단풍이 점을 찍듯 여기저기 퍼져 있다. 고분을 나와 소수서원(紹修書院)으로 간다. 한창 단장 중인 선비촌을 지나자마자 나타나는 소수서원은 우리 나라 서원의 시초이자 사액서원의 효시로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이 고장 출신으로 고려 말 유학자였던 회헌 안향(1243-1306년)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세운 이 서원의 원래 이름은 백운동 서원이었다.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1549년 퇴계 이황이 풍기 군수를 지낼 때 그 당시 임금인 명종이 '무너진 교학을 닦게 한다'는 뜻을 지닌 소수서원(紹修書院)이란 편액을 받게 되면서부터였다. 서원으로 가는 길은 수백년 된 소나무 숲과 병풍처럼 둘러쳐진 바위가 에워싸고 있고, 멀리 초암계곡에서 흘러든 개울(죽계수)이 마음을 맑게 씻어주어 삶에 지친 사람들을 평안으로 안내한다. 물가에 지어진 정자, 경림정에서 이 경치를 바라보면 경(敬)과 백운동(白雲洞)이란 글씨가 음각된 바위를 볼 수 있다. 솔 향기를 맡으며 계속 걸어 들어가다 서원 조금 못 미쳐 오른쪽으로 당간지주(보물 제59호)가 보이고, 조금 더 들어가면 취한정이란 정자가 나온다. 서원 대문을 들어서면 맨 먼저 명륜당 건물이 보인다. 스승과 제자들이 학문을 논하던 공간으로, 강당과 온돌 및 마루방을 두어 품위와 격조를 느끼게 한다. 그 뒤편엔 도서관에 해당하는 장서각과 강사 숙소로 쓰였던 직방재(直方齋)와 일신재(日新齋)가 나란히 서 있다. 건물들은 하나같이 단아하고 소박해서 저 정글 같은 삶의 어지럽증에 시달리던 이들을 편안하고 고요한 세계로 이끈다. 명륜당 서북쪽 담장 안에는 국보인 안향 선생 영정과 보물인 공자의 제자상, 그리고 주세붕의 영정 등을 복사해서 전시해 놓은 유물기념관이 있다.

소수서원에서 15km 정도 북서쪽(915번 지방도로)으로 올라가면 부석사에 이른다. 가을 부석사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부석리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온통 노란빛인 은행나무가 즐지어 서 있고, 길 왼편의 사과나무밭엔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누구라도 이 길을 지날 때면 군침을 삼키게 마련. 마음을 더욱 들뜨게 하는 것은 바람에 난분분 떨어져내리는 노오란 은행잎이다. 가을



부석사 - 은행나무길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이 길을 한번쯤 거닐어 볼 일이다. 영화에서나 나올 직한 수채화 같은 정경이 당신의 마음을 환상으로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노란 은행나무길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까지 절정을 이룬다.

어쨌거나 신라 문무왕 16년(676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부석사는 1300년 된 큰절로 선묘(善妙)라는 여인과 의상조사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당나라에 머물던 의상을 흠모한 한 여인(선묘)이 있었는데, 어느 날 당의 신라 침공 계획을 알게 된 의상이 황급히 고국을 향해 뱃길을 떠나자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선묘는 그를 뒤쫓아갔다. 그러나 이미 배는 떠나버린 후였고 선묘는 죽어 용이 되어서라도 의상의 앞날을 지켜주겠다고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졌다. 신라로 돌아와 호국사찰을 건립하려던 의상은 이교도의 방해에 부딪혀 애를 먹고 있는데, 이 때 용으로 변한 선묘의 닛이 큰 바위를 세 차례나 공중에 들었다 놓으니 이교도들이 혼비백산하여 물러갔다고 한다. 이 바위는 지금까지 무량수전 옆에 남아 있고 부석사라는 이름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우리 나라 5대 고찰에 드는 부석사는 목조 건물 중 가장 아름답다는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4점,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 천왕문을 들어서면 이 절터가 예사롭지 않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다. 가람을 둘러싼 봉황산은 단풍이 들어 새색시처럼 곱다. 요사채가 있는 뜨락에 들어서니 옛 모습을 잃지 않은 안양루가 우뚝하다. 극락 세계로 가는 첫 관문인 안양루 누각에 오르니 저 멀리 소백산 능선이 아스라하다. 경치가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곳에서 바라보는 뛰어난 경치는 김삿갓의 마음을 울렸는지, 누각에 김삿갓의 시가 걸려 있다. 안양루는 지붕 모양이 특이하다. 무량수전 쪽은 맞배지붕으로, 요사채 쪽은 팔작지붕인데, 앞으로 드러난 소백의 장엄한 연봉들과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누각 아래 마당에서 있는 호리호리한 모양의 석등(국보 제17호)도 눈길을 끈다. 안양루를 지나면 부석사를 대표하는 무량수전(국보 제45호)이 나타난다. 창건연대가 확인된 목조건물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무량수전은 다듬지 않은 주춧돌 위에 불룩한 ‘배흘림기둥’을 세워 안정감을 자아낸다. 정면 5칸 측면 3칸 건평 65평의 구조로, 집의 몸체와 지붕의 비례가 탁월하거나 두루몽실한 기둥과 추녀의 어울림은 언제 봐도 부드럽고 탄력이 넘친다.

무량수전 동쪽에는 단정한 모습의 삼층석탑(보물 제249호)이 서 있다. 여기서 산길로 조금 올라가면 의상대사의 진영(眞影)을 봉안해 놓은 조사당(국보 제19호)과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20호)이 봉안된 자인당 등도 살펴볼 수 있다. 조사당 처마 밑에는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은 것이 가지와 잎이 나 자랐다는 선비화(禪扉花)가 있다. 늘 푸른 선비화는 극성스런 관람객들의 손을 피하기 위함인지 철조망으로 꼭꼭 둘러쳐져 있다.



가을 부석사는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부석리 일주문에서 천왕문까지 온통 노란빛인 은행나무가 줄지어 있고, 길 왼편의 사과나무밭엔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소수서원

은 산하가 오색 빛깔로 물드는 이맘때, 부석사와 소수서원만 둘러보고 여행을 마친다면 왠지 허전하다. 부석사에서 915번 지방도로를 따라 풍기 쪽으로 되돌아오다 소수서원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죽계구곡 가는 길이 나온다. 소백산이 만든 죽계구곡은 이즈음에 찾으면 더욱 좋은데, 붉은 낙엽이 환상적이기 때문이다. 계곡 들머리인 순흥면 배점리부터 소백산 국망봉에 이르는 이 계곡은 옛날 퇴계 이황 선생이 계곡의 절경에 심취해 물 흐르는 소리가 노래 소리 같다 하여 각 계곡마다 그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준 데서 비롯되었다. 제 1곡 백운동 취한대를 시작으로 금성반석, 백자담, 이화동, 목욕담, 청련동애, 용추, 금당반석, 중봉합류까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내내 이어지는 계곡은 아기자기함이 돋보여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그만이다. 국망봉이 뻗어 내려다보이는 계곡 끝머리 산기슭엔 초암사란 조그마한 절집이 있다. 초암사까지 시멘트길이 닦여 있어 승용차로 오르내릴 수 있지만 길이 좁아 운전이 쉽지 않다.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면 배점리에서 천천히 제 1곡까지 걸어갔다 오는 데는 약 2시간 정도 걸린다. 등산코스(5시간 30분 14km, 배점리-죽계호수-초암사-석륜암골-국망봉-비로봉-비로사-풍기 삼거리). 이것으로 영주 여행은 대충 마무리된 셈이다. 일정이 허락한다면 소백산 옥녀봉 기슭에 들어선 자연휴양림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좋겠다. 풍기 나들목에서 3km 거리. 숲 향기를 맡으며 삼림욕을 즐기기에 그만이며 아늑한 계곡과 군데군데 작은 오솔길이 있어 가을의 운치와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취사도구는 물론 침구, 목욕실, 방갈로와 야영장, 숲속교실, 회의실 등 편의 시설도 부족함이 없다. 자연휴양림 뒤로는 소백산의 수려한 풍광이 펼쳐져 경치 또한 일품이다.

여행 메모 여행수첩(지역번호 054)=중앙고속도로 서제천 나들목으로 나와 5번 국도를 타고 제천-단양 거쳐 죽령을 넘으면 풍기. 면소재지에서 좌회전해 지방도를 타고 8km쯤 가면 소수서원이다. 여기서 계속 지방도를 따라 9km 더 가면 부석면 소재지인 소천리 사거리. 이정표를 따라 3km 가면 부석사 주차장. 중앙고속도로 풍기 나들목 풍기-931번 지방도-순흥면 소재지-죽계호수-배점 정류장-초암사. 기차:청량리-원주-풍기, 부산-대구-안동-영주, 강릉-동해-철암-영주. 버스: 동서울-원주-제천-영주, 북부정류장(대구)-안동-영주. 영주에서 배점리까지 버스 하루 4회 운행, 50분 소요. 풍기에서 순흥까지 40분마다 버스 운행, 20분 소요.

맛있는 곳 죽계구곡 쪽에 산채정식, 산채비빔밥, 된장찌개, 묵 등을 내놓는 식당(민박 겸용)이 많다. 명성식당(633-3262), 순흥전통목집(634-4614), 소삼식당(632-0420), 흥주고을(632-5116), 초암골기든(634-2326), 죽계산장(632-4141), 소백산장(632-6994), 청다리옛집(633-4288) 등. 영주시청 관광담당(639-6062), 영주역 관광안내소(639-6788), 초암사(633-2322), 부석사 증무소(633-3464), 소수서원관리사무소(634-3310), 소백산국립공원 초암매표소(633-7897), 옥녀봉자연휴양림(639-6911,6912), 영주시외버스터미널(631-5844), 시내버스터미널(633-0011), 풍기인삼시장(636-7948).

잠 자 리 영주시내와 부석면, 순흥면, 풍기읍 일대에 영주호텔(632-4000), 순흥여관(633-2124), 회방호텔(638-8000), 코리아나호텔(633-4445), 동인장(633-9605), 풍기호텔(637-8800), 영주시청소년수련관(633-0924) 등의 숙박시설이 있다.